

師範大學教育의

몇 가지 問題點

金 滄 烈 (全北大 化學教育科 教授)

I

뿌리 깊은 나무는 가뭄에도 마르지 아니하고 세찬 바람에도 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이것을 국가 장래의 教育大計를 세우는 데에다 비유해 보면 뿌리 깊은 나무란 底力 있는 국민을 말한 것이 될 것이다. 여기서 저력이란 학문적인 실력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강인하고 체력적으로 튼튼하며 國民精神衛生學的으로도 건강함을 가리킨다. 이러한 국민은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번영해 가면서 생존해 나갈 것이다.

戰後 일본의 부흥을, 혹자는 한국전란을 이용한 경제적 利得에서 힘을 얻고 실마리를 찾았다고 말한다. 물론 그것이 큰 계기와 전환점이 되었을 것이라고 필자도 시인한다. 그러나 그러한 轉換點으로 삼게 할 수 있었던 그들의 실력에 대해서는 그냥 넘기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한 계기를 유리하게 받아들이고 이끌며 도약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실력이 아무 국민에게나 있었겠는가 하는 말이다. 일본에는 그러한 저력이 있었던 것이다. 이 저력은 교육의 힘 특히 精神教育과 과학의 저변확대에 있었다고 본다.

本稿에서는 대학 특히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師範大學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엮어 나가려 한다.

II

1. 사범대학의 機能

사범대학은 원래 敎員을 양성하는 곳이고 그 대학내에서의 각 학과 명칭도 “○○교육과”식으로 부른다. 결들여서 사범대학은 教育技術을 개발하는 곳이기도 하다. 사범대학 및 같은 종류의 학과 학생은 졸업만 하면 누구나 2級正敎師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교사 자격증은 非師範大學의 학과에서도 학생에게 교직과정을 이수케 하여 무시험 검정으로 발급받게 할 수 있어서, 교원을 양성한다는 사범대학의 專門性이 다소 모호해지고 있다. 또 사범대학은 교사 재교육도 담당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항목을 바꾸어 논의하기로 한다.

## 2. 사범대학의 敎科課程

사범대학의 교과과정면을 살펴보면 특히 교직 과목에 있어서 교육철학, 교육방법, 교육평가 등과 같이 일반적인 敎職科目을 배우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전공과목에 알맞는 ○○교육 철학(가령 과학교육 철학), ○○교육 방법, ○○교육 평가 등과 같이 전공에 밀접히 관련되는 敎職科目으로서 배우고 있는 것은 극히 일부 과목이거나 전혀 배우고 있지 않는 곳도 있어 대단히 아쉬운 실정이다. 그래서 학생들은 일반 교직과목과 전공과목을 따로따로 배우고 그것을 자신들이 자기 학과에 맞게 관련지어서 再構成해야만 하는 문제점이 있다. 應用力이 미약한 학생들에게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인데 이 때문에 많은 교직 과목에 대한 그 많은 시간 배당의 有用性에 대하여 의문을 나타내는 학생들도 있다. 그러나 당장 각 학과에서 ○○교육 철학, ○○교육 방법, ○○교육 평가 등과 같은 과목을 가르친다는 것은 現時點에서는 대단히 어려운 형편이고, 그렇게 가르치는 곳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한두 과목 정도에 그치고 있다. 다만 다소 장기적인 目標 아래 이 방면의 교수를 양성하면 가능해지리라고 믿으며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專攻科目에 대해서 간혹 사범대학 교과과정은 특색이 없단거나, 가령 문리대대학의 해당 학과 과목과 유사하단거나 하는 論議가 가끔 일고 있다. 그런데 이 점에 관해서는 필자는 오히려 어떤 특색이 없이 모든 학과목을 고루 이수케 하는 것이 사범대학의 특색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師範大學生은 장차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고, 가르치려면 첫째 알아야 되는데, 알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모든 과목을 고루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

또 여기서 논의되어야 할 要素는 아닐런지 모르나, 교과과정 편성은 實驗大學 精神에 입각해서 보다 더 그 정신에 접근되는 방향으로 편성되어야 하고, 또 운영도 그렇게 하여야 할 것이다. 덧붙여 여기서 한 가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교과과정이 짜여져 있더라도 敎育環境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실험실습을 위한 시설의 보완이나 확충도 중등교사다운 敎師를 양성할 수 있을 만큼은 꼭 갖추도록 되어야,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3. 敎師資格證에 대하여

중건의 자격검정 시험에 의한 자격증 수여 이외에는 거의 무시됨 검정으로 자격증이 수여되고 있는데, 해당 대학의 학과에서 졸업만 하면 무조건 자격증을 발급해 주고 있는 無試驗檢定으로 하지 말고, 일정한 국가 자격 고시제에 의한 자격증 발급제도로 전환함이 어떨까 생각한다. 물론 敎育實習을 마친 사람이어야 함은 두 말할 필요도 없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국 사범대학의 해당 학과의 교과과정의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科學敎師의 자격증에 관해서는 다른 교과에 대한 교사자격증보다도 더 많은 논의가 뒤따르고 있다. 대체로 과학이라는 과목에는 물리, 화학, 생물, 지학 등 4과목이 내포되고 있는데, 자격증의 科目表示에 있어 그 예를 들면 과학(화학) 등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과학과 화학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는 뜻이며 중학교로 발령받으면 과학을, 고등학교로 발령받으면 화학을 담당하게 된다. 그런데 중학교로 발령받았을 경우에는, 위에 든 4과목의 성질이 고루 들어간 과학을 제대로 소화시켜 가르치기가 매우 힘들다. 이것은 물리, 화학, 생물, 지학 등 4科 학생에게 고루 내포된 문제점이며 이러한 비슷한 문제는 社會科目에도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사범대학이 중학의 科學敎師養成에 치중하면, 고교 화학교사 양성 면이 약화되고, 후자에 치중하면 전자가 약해지는 二律背反的인 관계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교사자격증 발급에 있어서는 중학 과학과, 고등학교물리, 화학, 생물, 지학 등을 분리하여 2元化하는 방안의 모색이 요망된다. 이 방안의 모색은 중학의 과학교사의 質을 높이기 위해서는 꼭 실현되어야 할 문제라고 본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4년제 敎育大學에서 중학의 과학 및 사회과 교사를 함께 양성하는 방법도 고려 될 수 있을 것이다.

#### 4. 教育實習에 대하여

교육 실습에 대한 몇 가지 건의 사항이 있다. 첫째, 실습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이다. 현직 교감, 교장들의 관점에서 보면 좀더 現場學習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실습 기간이 최소한 현재의 2배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은 실습에 들어가기 전에 실습생 指導教師에 대한 사전교육이 요망된다. 물론 사범대학에 교직과가 있고 여기서 실습록 등을 지참케 하여 현장 실습에 임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그 때문에 실습내용이나 방법 등에 있어 학교별로 一貫性이 결여되고 각 학교 지도교사 재량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허다하다. 교육 실습을 보다 더 실효를 거두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습내용, 실습방법, 실습평가 등에 관하여 지도교사에 대한 事前教育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한다.

#### 5. 사범대학 入學 志願者 선발문제

근자에 사범대학 입학 지원자에게 학교장 추천서 등을 첨부케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形式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責任 있는 추천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사범대학을 지원하는 사람 중에는 사범대학 납입금액이 낮다든가 취직률이 높다든가 하는 이유로 지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 같다. 사범대학을 지원하는 사람으로는 반드시 장차 교사로서의 使命感이 강한 사람을 추천하여야 할 것이며, 선발시에도 面接 등을 통하여 이 점을 놓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 家勢貧弱者가 많으므로 이 점도 고려하여 특별 배려함이 바람직하다.

#### 6. 教師再教育 문제에 관하여

이 문제는 현재 주로 사범대학이 재교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논의하고자 한다. 문교부나 산하 기관에서는 教師養成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과 예산을 쓰면서도 교사 재교육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한 느낌이 있다. 예를 들면 과학교사 연수시에 實驗實習費를 배정하지 않는 것도 그 한 예이다. 현재의 재교육은 다소 형식에 치우친 감이 없지 않은 바, 現職教師라

던 누구나 필요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재교육 기관을 거쳐가기만 하면 되게 되어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가장 조건이 나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중에 냉·난방 시설도 없이 한꺼번에 많은 과목의 많은 시간을 이수하게 되니, 가르치는 사람도 힘이 들지만 受講者도 지칠 정도로 힘이 들어서 실효가 적다는 것이다. 그래서 실효를 충분히 거두게 하려면 당국에서 대폭적인 支援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즉 냉방시설 아니면 천정 대형선풍기라도 설치해 주고 난방시설도 마련해 주며, 연수중에는 마음놓고 연수받을 수 있도록 제반 편의를 도모해 주고, 資格研修時는 두 학기에 걸쳐서 수강토록 출장비를 지원해 주는 등의 방법은 研修實效를 거두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 常設研修院을 설치하여 연중 문을 열어 방학중이 아닌 평상시에도 수강토록 한다면 더욱 좋은 연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문제가 따르게 되어 쉬운 일은 아니라고 믿으나, 發令待機者를 좀더 조기에 발령하여 교사들간의 수업시간 조정에 좀 여유가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직장에서 계속 연구와 독서를 하게 하기 위하여 미리 研修教材를 선정해 주고 연수생 평가시에 반영하며, 평가는 보다 더 엄정을 기하여 點數別로 승진이나 전보 등에 더욱 철저히 활용토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믿는다.

### Ⅲ

교육은 百年大計라고 말하듯 너무 성급히 그 효과를 기대해서는 안 될 것이며, 착실히 目標을 향하여 한걸음 한걸음 쌓아 가야만 한다. 교육의 質을 높인다는 것은 그 因子가 결코 단순치 않고 복합 요인이 작용하고 있으므로, 임기응변식 정책이 아닌 長期的 眼目으로 이 민족의 영원하고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대책이 수립되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衆智를 모으는 일이 중요하고, 좀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主務長官이 바뀐다고 基本政策이 바뀌는 일 등은 없어야 될 것이다. \*